



박용철 후보, '국회의원 선거 집 방문' 진실은?

강화군수 당선되어도 선거법 자격 상실과 무관 전망

국민의힘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민심을 살피려고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설혹 군수가 되거나 시의원이라고 해도 현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재판부 판단의 판례로 확인됐다.

당시 자신의 선거도 아니었고 선거 운동복도 입지도 않고 명함도 돌리지 않은 상태였다. 강화라는 곳은 지역 특성상 이웃사촌의 관계는 끈끈하여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 평소 접촉이 빈번하다. 친분은 지역 사회 특성상 가족과 같은 관계로 이어지는 고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유권자 집 마당 대화라고 해도 방문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한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박 의원은 선거를 열심히 해주었던 성불상(공개 불허)의 강화군민은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란 사실이 해소됐고 누구보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관계자라고 한다.

그의 태도로 방문했을 때도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집 마당에서 이야기한 것이 고작인데 문제가 됐다. 선거법상 마당도 호별 방문으로 본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입장이다. 일반 유권자가 아닌 핵심 당원이란 점을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도 재판부 판단의 사례를 보면 경북매일 보도다. "대구지법,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후보자 등 2명 벌금형(2022.11.20. 19:48)으로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자 벌금형

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80만 원, B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날인 지난 영천시청 내 사무실 11개를 연속적 방문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명함을 돌렸다는 지지 혐의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따른 부정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다음의 사례인데 경북일보 보도 또한 "예비후보 점퍼 입고 호별방문 선거운동...칠곡군의회 '벌금 50만 원'(2022.12.25. 13:40)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예비후보자 시절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의원 A씨(61)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역 시의원이었다. 그러나 강화군수 후보가 되기 위해 사퇴한 상황이고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 자격의 판례를 보면 자격정지와 무관한 결과가 올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A언론 보도는 이런 결과적 사실이 적시하지 않았다.

박용철 후보가 주장한 과거 사례를 비추어보면 호별 마당을 방문뿐이다. 처벌 중시로 유죄가 되면 자격 상실의 될 수도 있는 뉴앙스 논조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도록 느낌이 든 보도다. 박 후보 지지들은 강화군수로 당선되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처벌은 동기가 분명하면 처벌 감경과 공소기각이란 제도가 있어 강화군수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당시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오직 민심을 청취하러 지역구를 방문했다고 한다.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재판을 잘 준비했다며 주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사설 "이승만 동상 세우기 싫은 인사들 좌파인가?"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모호하게 박쥐처럼 행동하는 유명인사들이 여기저기 숨어 기회주의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모호한 행동이 국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유명인사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면 피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런 인사들이 지역에서 국민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허무함이 짙어진다.

최근 이승만 동상 세우기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자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실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거나 복원의 움직임이 지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다.

실제 인하대 설립자인 이승만 동상은 종북세력 운동권에 의하여 인하대 교정에서 1984년 없어지게 됐다. 파주의 허름한 창고에서 40년 동안 썩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

이와관련, 조명우 인하대 총장에게 전화해 지역의 움직임이 첨예한데 지역 인사들의 관심도가 높아 인하대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대외협력팀에서 대응할 것이라 짧은 답변의 문자를 조 총장이 보내왔다.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생각은 참담함을 주고 있다.

인하대학교 교정에서 이승만 동상이 운동권에 의하여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방적인 행동을 바로잡자는데 입장표명도 못하는 총장으로 분석된다.

좌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침묵에 우파의 인사들과 이승만 동상 세우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분개하고 있다. 총장 보신이 지나치다는 평가다.

인하대 동문 여론과 정부 움직임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쪽으로 무게감이 커지며 자유총연맹 또한 적극적 상황이다. 이런 실상을 피하는 대학 수장의 모습이다. 일부 좌파 인사는 이승만 동상을 세우는데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이다. 이들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총장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

후대에 와서 설립자를 이렇게 홀대하는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위로 분석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실격이다.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진실을 정정당당하게 말도 못 하는 처지가 안쓰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회주의적 인사들의 성향을 보면 유리하면 호응이고 불리하면 침묵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런 민낯은 구역질이 날 만큼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화해야 할 대목이다. 회색분자고 보신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10월 1일 군국의 날이 왜 다시 기념되고 있나,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만 잘되자는 만연한 기본기는 비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국은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는 외침으로 이 나라를 지켰야 한다. 그런 나라를 종북의 세력들이 이것저것 째뽕해 사회를 어지럽게 발언하고 있다.

조명우 총장은 이런 현실을 왜 외면하는지 교육자 맞나 싶다. 당당하게 이승만 동상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외협력팀으로 떠넘기지 말라, 국민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인가, 나라를 지킨 애국열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런 명분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좌파 종북세력과 같다는 의견이다.

고인인데 조중훈 회장은 대학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되는지 묻고 있다. 정체성이 모호한 이들이 곳곳에서 숨어 상황에 따라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제야 정체를 알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사들이 지도층이란 사실에 분노가 거세다. 민주주의 정의를 표현하고 옳은 소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농촌지도자,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대회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인천광역시연합회 주관으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경북 포항시 및 청송군 일대에서 농촌지도자 회원 160명이 함께하는 제15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천 농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전국에 인천 농업을 홍보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제77주년 한국농촌지도자전국대회 참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 시상 △소통과 화합의 장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견학 및 지역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저용문 농촌지도자 회장은 "기상 이변 등으로 농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 행사로 농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재미있고 뜻깊은 농촌지도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59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열성적인 활동으로 인천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농촌지도자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인천 지역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2024 인천 도시재생 성과전시회 개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간 '2024 인천 도시재생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내 22개 사업지의 성과 △도시재생 사진공모전 수상작 △업서 그리기 체험 △지역환경과 문화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3개소의 쇼룸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다채로운 시각으로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성과전시회가 열리는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중구 선린동 25-2)는 iH인천도시공사가

인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원도심 문화재생을 위해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시민에게 개방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도시재생의 의미가 깊은 공간이다. 전시는 정기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19일 21시 연장)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며 공휴일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이일희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인천 도시재생의 산물인 구 화교점포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천 도시재생을 통해 인천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